

도민 “‘쓰레기 등 환경’ 제주도정 최대 과제”

본보 제주지역 현안 등 여론조사 분석 결과
원희룡 도정 긍정-도의회는 부정평가 우세
‘제2공항 신설’ 보다 ‘제주국제공항 확장’ 선호

제주도민들은 ‘성산 제2공항 추진’ 보다는 ‘기존 제주공항 확장’을 선호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원희룡 제주지사의 도정수행 평가에서는 긍정평가가 근소한 차이로 부정평가를 앞섰고, 제주도의회 평가에서는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이석문 제주도교육감의 직무수행에 대해서는 ‘잘한다’는 평가가 ‘못한다’는 평가보다 높게 나왔다.

이는 한라일보가 창간 30주년을 맞아 도민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제주지역 현안 등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른 것이다. >>>관련기사 2-3면

우선 제주지역 공항 시설 확충 방안을 조사한 결과 ‘기존 제주공항 확장’이 46.9%, ‘성산읍 제2공항 추진’ 30.5%, ‘제2공항 건설-새로운 공항 입지 선정’ 9.8%, ‘공항시설 확충 반대’ 5.9%, ‘기존공항 폐쇄-새공항 건설’ 4.0% 순으로 나타났다.

제2공항 후보지 선정 공정성 여부 조사에서는 ‘불공정하다’는 응답이 55.7%, ‘공정하다’는 응답이 37.0%로 불공정이 공정보다 18.7%p 앞서는 것으로 조사됐다.

제주도 행정체계 개편 방안 조사에서는 ‘행정시장 직선제’가 41.0%로 가장 높았고, 그 다음으로는 ‘2개의 행정시 체제’ 30.0%, ‘4개의 기초자치단체’ 13.8%, ‘2개의 기초자치단체’ 9.4% 순으로 조사됐다.

제주도에서 가장 시급하게 해결해야 할 과제로는 ‘쓰레기 등 환경’이 37.7%, ‘경제·일자리’ 19.7%, ‘교통’ 16.2%, ‘하수·지하수처리’ 7.9%, ‘축산오염’ 6.9%, ‘항공’ 5.9% 순으로 꼽혔다.

IB교육프로그램 도입 추진에 대해서는 찬성 응답이 46.2%, 반대 응답이 36.0%로, 찬성이 오차범위 밖인 10.2%p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원희룡 제주지사 도정수행 평가는

‘잘함’ (매우 잘함 7.5%, 잘하는 편 40.7%)이 48.2%, ‘잘못함’ (매우 잘못함 17.5%, 잘못하는 편 29.9%)이 47.4%로 긍정평가와 부정평가가 0.8%p 차이로 팽팽했다.

이석문 제주도교육감 직무수행 평가 조사는 ‘잘함’ (매우 잘함 6.1%, 잘하는 편 51.7%)이 57.8%, ‘잘못함’ (매우 잘못함 6.2%, 잘못하는 편 19.9%)이 26.1%로, 긍정평가가 부정평가보다 31.7%p 높았다.

제주도의회에 대해서는 ‘잘못함’ (매우 잘못함 8.4%, 잘못하는 편 39.8%)이 48.2%, ‘잘함’ (매우 잘함 1.6%, 잘하는 편 38.4%)이 40.0%로 부정평가가 긍정평가보다 8.2%p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여론조사는 한라일보가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리얼미터에 의뢰해 지난 17일부터 사흘간 제주도에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 남녀 1525명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조사는 ▷2020 총선 후보 적합도 ▷원희룡 제주지사 도정수행 평가 ▷이석문 제주도교육감 직무수행 평가 ▷제주도의회 평가 ▷제주도 주민 생활 만족도 및 지역현안 등의 내용이 담긴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해 유·무선(유선 40%·무선 60%) 전화면접조사 방법을 사용했다. 표본 추출은 통신문 제공 휴대전화 가상번호 데이터베이스(DB) 및 유선 RDD(무작위 생성 전화번호를 통한 임의의 걸기) 표본 프레임에서 무작위 추출했다.

응답률은 11.7%(총 통화 1만3000명 중 1525명 응답 완료)였으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2.5%p 포인트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www.nesdc.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고대로지사 bigroad@ihalla.com



제주에서 잠시 나래를 접은 철새들. 동남아시아 등지에서 겨울을 난 철새들이 번식지로 이동 중 먹이 섭취와 휴식을 위해 중간 기착지인 제주를 찾아 잠시 나래를 접었다. 사진은 상단 왼쪽부터 제비물떼새, 흰배물떼새, 흰눈썹붉은배지빠귀, 중간은 흑새, 물총새, 큰유리새, 하단은 알락꼬리마도요, 갯빛씨꼬리새, 갈새.

제주도립공원 구역변경 심의기구 본격 활동

제주도, 어제 위촉식… 도립공원 지정·폐지 등 역할
주민 반발로 공청회 연기… 의견수렴 후 결정 계획

제주도립공원의 지정·폐지 및 구역변경 등을 심의하는 제주특별자치도 도립공원위원회(위원장 행정부지사)가 본격 활동에 들어갔다.

제주특별자치도는 22일 오전 제주도청 회의실에서 도립공원위원회 위원 15명 중 14명이 모인 가운데 위촉식을 개최했다. 위원 임기는 지난달 26일부터 2년이며, 1회 연임이 가능하다.

위원회의 역할은 ▷도립공원의 지정·폐지 및 구역변경에 관한 사항 ▷도립공원계획의 결정·변경에 관한 사항 ▷도립공원 환경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업에 관한 사항 ▷그 밖에 도립공원의 관리에 관한 중요

사항 등이다.

제주도에 따르면 지난 2018년에도 위원회가 위촉된 바 있지만, 제주국립공원 확대 지정에 대한 주민 반대로 사업이 연기되면서 진도를 나아가지 못했다.

환경부의 제주국립공원 제시안을 보면, 기존 국립·도립공원 361km²를 610km² 규모로 약 249km² 늘리는 내용이 담겼다. 구체적으로 육상을 기존 156km²에서 329km²로, 해상을 205km²에서 281km²로 확대하는 것이다.

주요 확대 구역은 한라산 주변 중산간 지역과 구좌·표선지역의 오름군락, 환경·저지 곳자왓, 동백동산 습지 등이며, 해상은 기존 5개 해양

도립공원 주변 해역과 차귀도 영산홍 군락지 등이다.

제주도가 2017년 11월 환경부에 제주국립공원 확대 지정을 신청했으며, 이듬해 3월부터 환경부가 타당성 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하지만 주민 반발에 부딪혀 올해 1월로 예정됐던 주민설명회와 공청회가 연기되는 등 진통·파행을 계속되고 있다.

이밖에도 도립공원은 ‘우도 해중전망대 조성 사업’을 심의할 예정이다. 사업은 제주시 우도면 연평리 882-1 전면 해상에서 150억원을 투입해 130m 길이의 스카이워크와 해중전망대를 조성하는 사업이다.

제주자치도는 이달 중 신청서가 제출되면 도립공원위를 통해 사업을 검토할 계획이다.

이소진기자 sj@ihalla.com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도로
편입토지 보상 1068억 투입
제주도, 53개 구간 보상 착수

제주특별자치도는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도로 편입토지의 보상을 위해 올해 1068억원을 투입해 50개 노선(53개 구간)에 대한 보상에 착수했다고 22일 밝혔다.

보상 편입토지는 제주시 24개 노선(27개 구간)에 614억원, 서귀포시 26개 노선에 454억원이다.

4월 현재를 기준으로 금년 예산의 40%인 437억원을 보상·집행했다. 더불어 최근 측량 및 감정평가를 완료함에 따라 본격적인 보상협의를 추진하고 있어 앞으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 편입토지에 대한 보상비 집행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제주자치도는 제주·서귀포시와 협업을 위해 구성된 TF회의를 매월 개최하는 등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의 원활한 보상과 2019년 예산의 집행을 제고하기 위해 총괄 조정·관리하고 있다.

이양문 제주자치도 도시건설국장은 “편성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의 보상 예산이 이월되지 않고, 100% 집행 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여 나가겠다”며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 일몰에 대비해 추진 중인 도시관리계획 재정비를 통해 실효대상 도로의 폐지·변경 등을 검토하고, 난개발 방지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고대로지사

제주네비게이션 AS센터
블랙박스 점검센터
(본초사거리에서 바닷가 방향 세계로마트 내)

블랙박스 4채널 장착가능
네비게이션 업데이트 가능
☎ 711-6544

한라일보 창간 30주년을 축하합니다.

**지역이 강한 나라
균형발전 대한민국**

대통령 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
Presidential Committee for Balanced National Development